

창고 자료관

창고 자료관 건물은 1893년에 간나이마치(館内町)의 지주였던 모리 이소지(森伊三次)에 의해 지어진 일본풍 건물로, 모리 일가의 가재도구를 수납하는 ‘도구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2014년 2월에 현재의 장소에 건물 채로 이전된 후 개수하여 ‘창고 자료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창고 자료관이 있는 간나이마치의 ‘간나이’는 관내(館内)라는 의미로 당인주거지의 내부에 위치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나가사키에 온 중국인들을 거주시키기 위해 1689년에 바쿠후(幕府) 소유의 쥬젠지고(十善寺郷)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인주거지입니다. 쇄국시대에 유일하게 해외와 무역을 할 수 있었던 나가사키에서 당인주거지는 데지마와 함께 179년간 해외교류의 창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1859년에 개국이 시작되면서 당인주거지를 관리하던 나가사키부교소(長崎奉行所: 나가사키를 통치하는 관공서)가 1868년에 퇴거하자 매각되었고, 이 일대를 사들인 사람이 바로 모리 이소지였습니다. 모리 이소지는 나가사키현의회 의원을 지낸 지역의 명사였으며 1913년에 쑨원(孫文)이 나가사키에 공식방문했을 때에는, 복건회관(福建會館)에서 열린 화교 주최의 환영 오찬에도 초대되어 쑨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재정비에 힘쓴 그는 간나이마치 하천에 돌다리를 설치하였고, 이때 설치된 모리바시 다리와 모리이바시 다리, 사카에바시 다리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사키 신문사와 브릭홀 등이 있는 모리마치(茂里町)도 모리 이소지가 우라카미가와(浦上川) 강 하구를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며, 마을 이름도 그의 이름인 ‘모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창고는 2층 건물로 크기는 5m 31cm×4m 93cm입니다. 특징 중 하나인 1층 북쪽의 중앙 출입문은 바깥쪽은 철재로 만들어진 쌍여닫이 문이며, 안쪽은 흙문과 격자문, 방충망으로 구성된 3중의 미닫이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바닥을 지탱하는 대들보를 노출한 천장장선이 특징적입니다. 2층엔 세 곳에 창문이 있으며 모두 3중으로 만들어져, 바깥쪽은 철제 여닫이문, 가운데는 철제 격자문으로, 안쪽은 판자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이러한 형태와 재료를 건축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유구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 『나가사키 당관 그림집성-근세 중일 교섭자료집 6-』, 오바오사무 편저, 간사이 대학 동서학술연구소 자료집 발간 9-6(간사이 대학 출판부)
- * 『이시자카유신 필 당관관 그림첩』, 하라다 히로지 해설, (나가사키 문헌사)
- * 『신 나가사키사』 제2권 근세 편, (나가사키시)
- * 『사진 잡지 쑨원(孫文)과 나가사키 신헌혁명 100주년』, 나가사키 중국 교류사 협회 편찬, (나가사키 문헌사)
- * 『나가사키시 간나이마치 모리씨 소유의 창고 2동에 관한 소견』, 하야시 카즈마
- * 『일본지명 대사전(나가사키현)』, 가도가와 서점



<1층> 3중으로 된 외미닫이 대문

- ①철제로 된 쌍여닫이문 ②흙문
③격자문 ④방충망



<2층> 외미닫이문

- ①철제로 된 외미닫이문 ②철제 격자문
③외미닫이 판자문



The Tojin-Yashiki



唐人居住区



당인주거지



唐館書房之圖



당인주거지는 밀무역 방지 등을 위해서 나가사키시의 주젠지고(十善寺郷: 현재의 칸나이마치(館内町))에 만들어진 중국인 거주지였습니다. 1688년에 착공하여 다음 해에 완성된 당인주거지는 당시 8,015평이었습니다. 외곽은 높은 토담과 해자(壕字), 대울타리를 사용해 삼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연립주택 형식의 2층짜리 기와집이 약 20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84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중국인들이 직접 세운 건물들이 다수 신축되었지만, 이마저도 당인주거지가 폐지된 후 1870년에 생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는 분양되고, 현재는 나가사키시 지정사적지로 지정된 토신당(土神堂)과 천후당(天后堂), 관음당(觀音堂)이 당시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인주거지의 역사 (연혁과 옛 지도)

■당인주거지

무로마치 시대 중기 이후에는 규슈 각지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635년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 이외의 지역에서의 중국교역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규슈 각지의 중국인들은 나가사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가사키는 중국과의 무역 기지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670년대에 이르러서는 나가사키의 전체인구 약 6만 명의 6분 1인 약 1만 명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무역 제한이 해제되어 일본과 교류하고자 나가사키로 오는 중국 선박의 수가 급증하였지만, 일본에서는 무역 통제령이 내려져 무역허가를 받지 못해 수많은 중국 선박이 허무하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통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밀무역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인주거지는 이러한 밀무역을 단속하고, 무역을 철저히 통제할 목적으로 중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688년에 현재의 나가사키시 칸나이 마치인 주젠지고(長崎村十善寺郷)가 있었던 이곳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689년 4월에 완성되었습니다.

당인주거지는 높은 토담과 대울타리를 사용하여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5곳의 경비초소가 설비되어 있는 등 엄중한 감시하에 관리되었습니다. 주거지에는 중국의 선원들과 상인들이 수용되었고, 기와를 얹은 연립주택 형식의 2층 건물이 20채 있었으며, 일본인은 기녀와 지역관리만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의 자유로운 거주가 법률적으로 허가된 것은 1871년의 청일 수호 조약이 체결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안세이(安政)시대의 개국과 함께 당인주거지는 철폐되었기 때문에, 중국인의 대부분은 신치와 오우라의 외국인 거류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히젠국(肥州) 나가사키 지도, 분킨도 발간, 1802년, (1장 지본색인 68.0cm×47.0cm) (주) 나가사키 문헌사 소장

에도시대에는 목판화로 인쇄된 나가사키의 시내지도가 안내지도 겸 기념품용으로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에도시대 후기인 1802년경의 지도로,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기 66년 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구석에 적힌 남쪽이라는 글자 윗부분이 이곳 “당인주거지”입니다. 당인주거지는 1689년에 중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해안에는 부채꼴 모양의 데지마와 정사각형의 신치 창고가 보입니다. 신치 창고는 당인주거지의 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인주거지의 역사 (항로 및 연표)



■ 당인주거지 연표

- 1635 나가사키에서만 중국과의 무역을 허용
- 1689 약 6,830평의 당인주거지를 조성하여 중국인을 수용
- 1690 토신당(土神堂) 건립
- 1702 신치(新地) 창고 조성
- 1736 천후당(天后堂) 건립
- 1784 당인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제당(關帝堂)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소실.
- 1868 복건회관(福建會館)에 천후당(天后堂)이 건립
- 1870 구 당인주거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
- 1906 천후당(天后堂) 복원
- 1917 관음당(觀音堂) 복원
- 1961 구 당인주거지 문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
- 1974 토신당(土神堂), 천후당(天后堂), 관음당(觀音堂)이 나가사키시 사적지로 지정
- 1977 토신당(土神堂) 복원
- 2000 복건회관(福建會館)의 천후당(天后堂)이 나가사키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오랜 시간 중국과 교류를 통해 중국의 문화는 나가사키의 연중행사와 식습관 등 다양한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사(唐寺: 중국의 절)



‘나가사키 명승도’에 그려진 소후쿠지(崇福寺) 절

나가사키에 내향한 중국인은 출신지별로 고향 단체를 만들어, 고후쿠지(興福寺) 절, 후쿠사이지(福濟寺) 절, 소후쿠지(崇福寺) 절을 관리하였습니다. 황벽종(黃檗宗)의 사원인 이 절들의 중국인 승려들에 의해 나가사키에 중국 남부의 문화가 전해졌습니다만, 1724년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류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중행사



용춤도 (“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카와하라 케이가 작품, 에도시대 후기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나가사키의 연중행사 중에는 페론, 연날리기, 추석, 쇼로나가시, 군치 축제 등과 같이 중국의 풍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서책과 그림 등을 감정하는 지역 관리(唐繪目利)였던 와타나베 슈세키는 고후쿠지(興福寺) 절의 3대 주지였던 일연(逸然)으로부터 중국의 그림을 배웠습니다.



와타나베 슈세키(渡辺秀石)의 야도군자루즈(野稻郡雀図: 비와 참새의 그림)

내박청인(來舶淸人)



청인초상화(淸人画像)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나가사키에서는 중국 상인 중 특히 시와 서예, 그림, 음악 등을 즐기는 문화인을 내박청인(來舶淸人)이라 불렀습니다. 내박청인을 통해 전파된 다양한 중국식 화법(畵法)을 일본에서는 나가사키파(長崎派)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음식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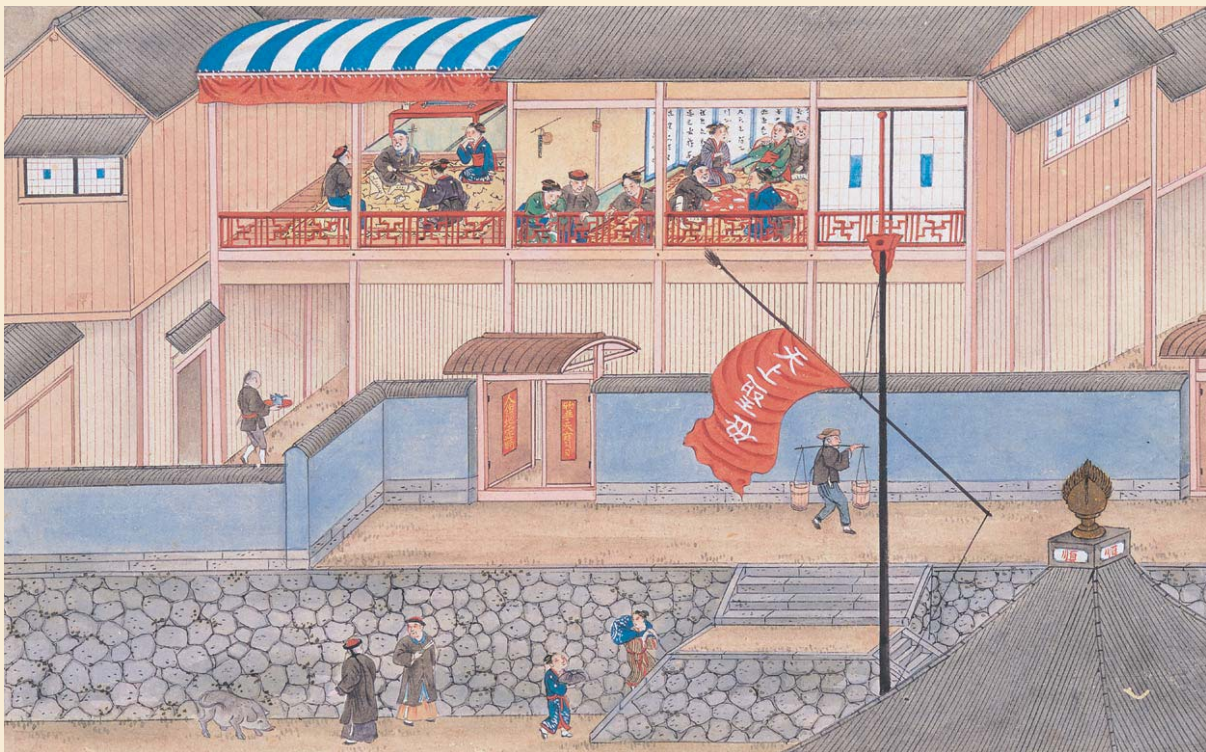
나가사키에는 중국풍의 요리를 나가사키식으로 재해석한 싯포쿠요리(卓袱料理)와 중국식 과자, 복숭아만쥬, 왕굴 절임, 치마키(떡) 등이 있습니다.



당란관(唐蘭館) 그림첩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당인주거지에서의 생활 (문화교류)



당인주거지 기생 유흥도 (“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카와하라 케이가 작품, 에도시대 후기 (19세기), (1권 지본착색 22.8cm×36.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나가사키 판화・당인주거지 방 그림, 야마토야 발간, 에도시대 후기(19세기), (1장 지본색인 34.0cm×25.0cm)

(주) 나가사키 문헌사 소장



명청악(明清樂) 연주 풍경을 그린 그림 (“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작가 미상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당인주거지 기생 유흥 그림 (위 그림)

니노몬(二ノ門)을 통해서 당인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일본인은 기녀와 지역관리뿐이었습니다. 1737년에 당인주거지를 드나든 기녀의 수는 총 1만6913 명에 달했습니다.

당인주거지의 세시기 - 중국 춤 관람 (歲時記)



관람도 (“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카와하라 케이이 작품, 에도시대 후기(19세기), (1권 지본착색 22.8cm×36.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매년 토지신(土地神)의 생일인 음력 2월 2일에는 토신당(土神堂) 앞에서 성대한 제례가 열렸습니다. 생일을 중심으로 2~3일 동안 열린 이 제례에서는 토신당 앞에 무대를 설치하여 중국 춤 공연이 열렸으며, 공연에는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 나가사키를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와 지역 관리 등이 초대되었습니다.

당인주거지의 세시기- 중국 용춤 (歲時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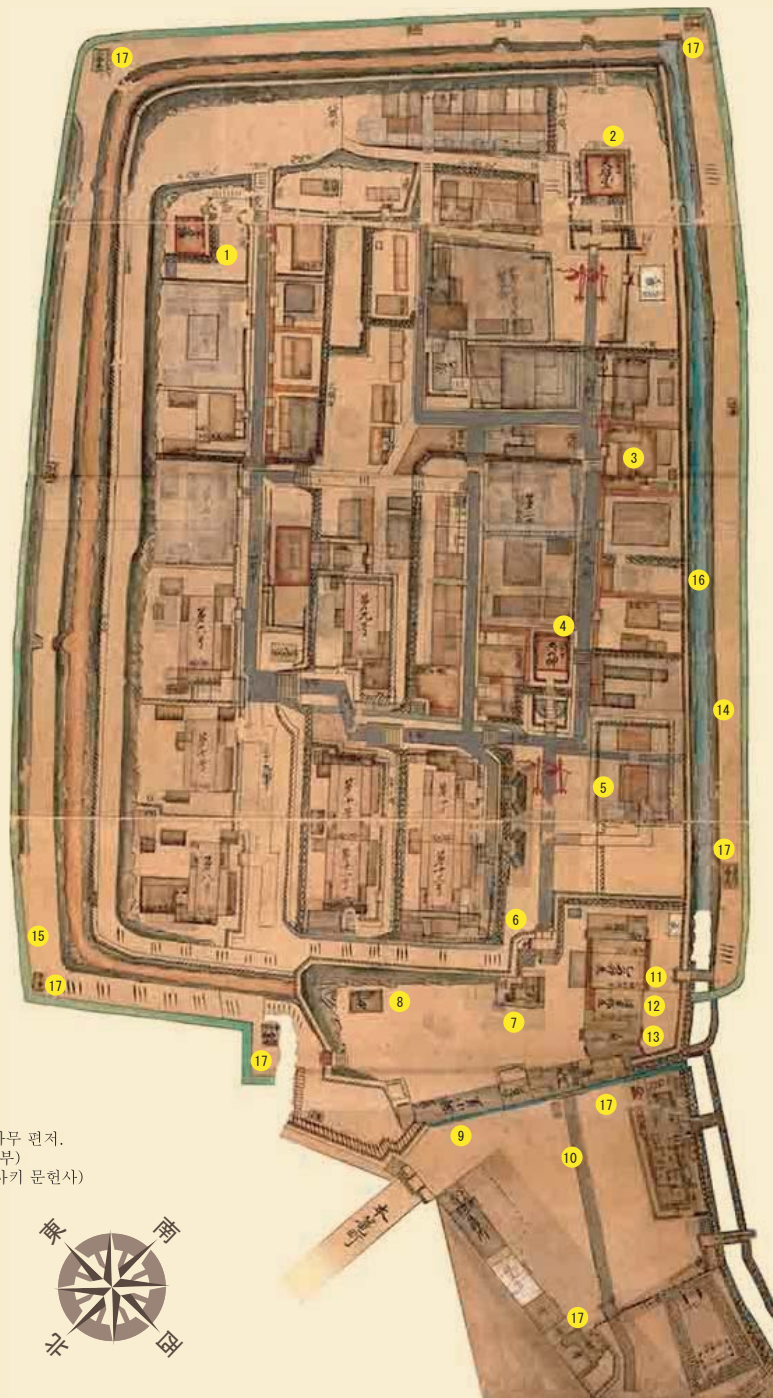


용춤도 (“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카와하라 케이가 작품, 에도시대 후기(19세기), (1권 지본착색 22.8cm×36.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당인주거지에서는 매년 정월 15일이 되면 복이 오기를 기원하는 제례가 열렸습니다. 밤에는 수많은 등불이 켜지고, 아름답게 꾸민 기생들이 참배하는 등 제례는 매우 화려하게 치러졌으며, 용춤은 제례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용춤 공연은 당인주거지 안에 있는 토신당(土神堂)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 용춤은 나가사키 사람들에게 전해져, 지금까지도 군치(나가사키의 전통 축제)를 대표하는 공연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인주거지 개요

‘당인주거지’는 중국인들의 거류지로, 179년 (1689~1868)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6,800평(후에 약 9,400평으로 확장)이었으며, 폭은 약 140m로, 길이는 250m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주변은 담장에 둘러싸여 데지마(出島)와 마찬가지로 거주자는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출입도 자유롭게 않아 이곳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통역사와 기생 등 한정된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기독교 전파 및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인과의 접촉에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이몬’에 들어서면, 오토나(乙名:거주지를 감시하는 관리)와 통역사의 대기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는 허가를 받은 나가사키 상인들이 야채, 생선,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광장을 지나 ‘니노몬’ 너머는 중국인 거주지역으로 나가사키의 관리도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중국인은 ‘호베야(本部屋)’ 건물에 살았으며, 배의 단위에 따라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층은 선주와 상급 선원들이, 1층에는 하급 선원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초기의 건물은 일본인들이 지은 일본식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784년에 생긴 화재로 소실되어, 새 건물을 짓게 되면서 중국인들이 직접 중국식으로 만든 ‘지분다테(自分たて)’라 불리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붉은 격자문과 병풍 등으로 장식된 중국풍의 마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시설로 토신당(土神堂)과 관음당(觀音堂), 천후당(天后堂)이 있었으며,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시텐(市店)’이라 불리는 상점도 만들었으며, 술과 차, 과자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 【참고문헌】
- * 『나가사키 당관 그림집성-근세 중일 교섭자료집 6-』, 오마오사무 편저, 간사이 대학 동서학술연구소 자료집 발간 9-6(간사이 대학 출판부)
 - * 『이시자카유신 필 당관관 그림집』, 하라다 히로지 해설, (나가사키 문헌사)
 - * 『신 나가사키사』 제2권 근세 편, (나가사키시)

①관음당(觀音堂)

관음당은 1737년에 푸젠(福建) 출신의 당선주(唐船主)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데지마에는 없었던 종교적 시설이 당인주거지에 있었던 이유는 격리된 주민들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여, 자유롭지 못한 장기체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화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관음당은 이후 몇 번의 보수를 거쳐 1917년에 개축되었습니다. 일구의 배치형 석문은 당인주거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②천후당(天后堂)

천후당은 1736년에 중국 난징(南京) 사람들이 항해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하여, 이곳에 천후성모(天后聖母)를 모신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790년에 수리 및 복원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1906년에 전구에 있는 화교들의 기부로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곳은 관제(關帝)도 함께 모시고 있어 다른 이름으로 관제당(關帝堂)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③대표의 방(總代部屋)

대표의 방(소다이베야)은 무역단의 대표자인 당선주(唐船主)가 있었던 방입니다.

④토신당(土神堂)

토신당은 중국인들의 요청으로 1691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토지신의 생일인 음력 2월 2일에는 무대를 설치하여, 중국 악기연주 등의 무대가 꾸며졌고, 무대를 보기 위해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도 왔었다고 합니다. 토신당은 1784년에 큰 화재로 소실된 후 복원되었으며 화교에 의해 보수 및 개축, 보존되었습니다. 다. 노후화로 인해 1950년에 해체되며 석전만 남겨졌게 되었지만, 1977년 나가사키시에 의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⑤영혼당(靈魂堂: 유평당(幽靈堂)이라고도 함)

중국인이 객사(客死)한 경우에는 나가사키 삼복절(三福寺)인 고후쿠지(興福寺)절 또는 후쿠사이지(福濟寺)절, 소후쿠지(崇福寺)절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나 선장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배를 통해 중국에 송환하였습니다. 본국에 송환하기까지는 이곳 영혼당에 안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인주거지 내에서 사망한 중국인의 위패도 영혼당에 모셔졌습니다.

⑥니노몬(二ノ門)

다이몬보다 더 안쪽에 위치한 니노몬 너머에는 중국인들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관리들조차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니노몬을 지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본인은 기생뿐이었습니다.

⑦니노몬 경비초소(二ノ門番所)

당인주거지에는 이곳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비(唐人番)가 있었습니다. 경비는 다이몬과 니노몬에 배치되어 문감의 검사와 사람의 출입을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직책은 세습제(世襲制)였으며, 집안 대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경호를 담당하는 경비 이외에도 중국인과 당인주거지를 드나드는 일본 상인들의 물수색을 담당하는 경비(探番)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니노몬 경비초소에만 근무했지만, 1717년 이후부터 다이몬과 니노몬에 4명씩 배치되었습니다.

⑧감옥

다이몬과 니노몬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24명 남짓한 크기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⑨아미고야(網小屋)

다이몬에 들어서서 바로 옆 동쪽 편을 보면 5m 91cm×23m 64cm 크기의 연립주백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인들의 집을 검사하는 장소였으며, 그물 등도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⑩다이몬(大門)

당인주거지에는 항구와 맞닿은 북쪽에 59m 10cm×5m 91cm 크기의 정문(表門)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비(唐人番)와 드나드는 사람들을 수색하는 경비(探番) 등의 지역 관리들이 엄중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몬(大門)과 니노몬(二ノ門) 사이에는 약 600평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이몬의 남쪽에는 금지 사항을 쓴 팻말(御制札)이 세워져 있었고, 통역사와 오토나(乙名: 당인주거지를 감시하는 관리)가 사용하는 건물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이몬 안쪽의 광장은 당인주거지의 오토나가 발행하는 문감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 등을 열었기 때문에 매우 붐볐다고 합니다.

⑪오토나(乙名)의 방

오토나(乙名:당인주거지를 감시하는 관리)는 1689년에 당인주거지의 조성과 함께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당인주거지 내부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관리를 비롯하여 사업의 상담자로서 중국인들에게 조언하는 것도 오토나의 역할이었습니다.

⑫통역사(唐通事)의 방

중국어를 통역하는 통역사를 당통사(唐通事)라고 불렀습니다. 당통사는 통역뿐만 아니라 무역 업무와 당인주거지의 중국인들을 보살피는 일 등 활동 영역이 매우 넓어, 다양한 분야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⑬도담 ⑭대울타리 ⑮,⑯해자(壕字)

당인주거지는 밀무역을 방지하고 기독교 전파를 철저히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의 외부 출입은 엄격하게 감시되었습니다. 당인주거지는 현재의 간나이마치(館内町) 전체 크기와 같은 약 9,400평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당인주거지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주위를 토담(練堀)으로 에워쌌으며, 바깥쪽은 물이 흐르는 해자(水堀)와 물이 흐르지 않는 해자(空堀) 등 위치와 역할에 맞추어 두 종류의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대울타리(竹垣)로 주위를 에워싸 삼중으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⑰경비초소(番所)

당인주거지의 경비는 출입을 허용하는 문감 검사를 비롯하여 사람의 출입을 감시하고 이곳을 경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가사키 만(灣)은 파도가 험하지 않고, 아름다운 섬들이 있었으며, 대형
범선이 입항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항구였습니다.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는 1571년 나가사키에 6개의 마을을 조성하여,
시마바라마치(島原町), 히라도마치(平戸町), 오무라마치(大村町), 요코세우라
마치(横瀬浦町), 호카우라마치(外浦町), 분치마치(文知町)라 이름 지었습니
다. 같은 해에 포르투갈의 선박이 나가사키 항구에 처음으로 입항하였으며,
이후 나가사키는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635년에 당선(唐船: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역선)의 내항이
나가사키로 한정되면서, 수많은 당선이 나가사키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항
수가 가장 많았던 1688년에는 총 117척의 당선이 내항하였으며, 이후에도
연간 70~80척의 선박이 내항하였습니다. 하지만 1715년에 정부(幕府)에
의해서 내항 가능한 선박의 수는 30척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선박은, 1641년에 히라도의 상관이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이전되자 정기적으로 나가사키에 내항하였습니다. 내항 수가 가장 많았던
1658년에는 43척의 배가 내항했으며, 이후 3~7척 정도가 내항했지만,
1715년에는 내항 가능한 선박의 수가 2척으로 한정되었고, 무역액도 제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시자키 유시의 화란선당선도(和蘭船唐船圖)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당선의 내항 (당선의 종류)

(唐船: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역선)



난징선(南京船), 작자 미상, 시대불명 (1폭 지본착색 57.5cm×78.3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닝보선(寧波船), 작자 미상, 시대불명 (1폭 지본착색 57.5cm×78.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광둥선(廣東船), 작자 미상, 시대불명 (1폭 지본착색 57.5cm×78.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태국선(暹羅船), 작자 미상, 시대불명 (1폭 지본착색 57.5cm×78.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당선(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역선)은 출항지에 따라서 구치부네(口船)와 나카오쿠부네(中奥船), 오쿠부네(奥船)의 3종류로 나누었으며, 그 크기도 각각 달랐습니다. 난징선(南京船), 닝보선(寧波船)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오는 배들은 구치부네라고 불렸습니다. 거리가 짧은 만큼 그 크기도 작았으며, 그중에는 사선(沙船)이라 불리는 중국의 하선(河船)도 내항하였습니다. 광둥선(廣東船)과 같이 거리가 조금 먼 곳에서 오는 배는 나카오쿠부네라고 하였고, 멀리서 오는 배는 오쿠부네라고 불렸습니다.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하는 오쿠부네의 경우 바다의 풍파에 견딜 수 있는 대형선박으로 선원들이 100명이 넘는 규모의 배였습니다.。

당선의 내항 (입항 및 실패)

(唐船: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역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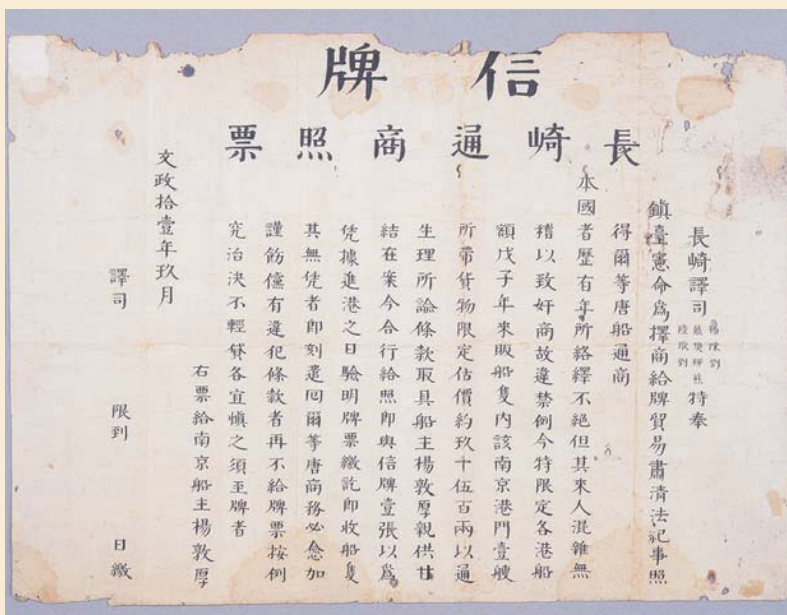
나가사키항구 입구에 임시 정박한 당선 (“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이시자키 유시 작품, 1802년, (1권 견본착색 42.5cm×790.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나가사키 항구에 임시 정박한 당선 (위 그림)

이시자키 유시(石崎融思)는 중국에서 들여온 서책과 그림 등을 감정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역 관리로 일하는 등 바쿠후 말기 나가사키 미술계의 권위자였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에서 온 배가 입항하는 모습을 비롯하여 신치와 당인주거지의 모습 등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직과 당시의 장면 등의 부연 설명이 함께 붙어있는 등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선(唐船)이 나가사키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일단 당선이 나가사키항구에 모습을 보이면, 노모(野母: 나가사키의 지역 이름)의 정찰보초소에서 배가 도착했음을 알렸고, 이 연락을 받은 순찰선이 출동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돛대 등 배의 고장을 위장하여 입항을 늦추고 그사이에 밀무역을 하고자 계획하는 당선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순찰선은 물과 채소 등의 생필품을 싣고 출동하여 당선이 조속히 항구에 입항할 수 있도록 재촉하였습니다.



■실패 · 나가사키 통상조표 (아래 사진)

실패(信牌)란 1715년에 나가사키의 무역 제한령(正徳新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화된 무역 허가증으로, 이것을 소지하지 않은 선박은 무역을 허가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의 발급은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 나가사키를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의 명을 받아 당통사(唐通事: 중국어 통역관)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패는 무역액은 은의 경우 최고 6,000관까지로 제한하고, 동은 연간 300만 근을 팔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위조를 막기 위하여 실패는 일본의 전통종이가 사용되었으며, 발급 대장을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발급 대장과 실패를 계인(契印)하였으며, 그 도장은 나가사키부교소(長崎奉行所: 나가사키를 통치하는 관공서)에 엄중히 보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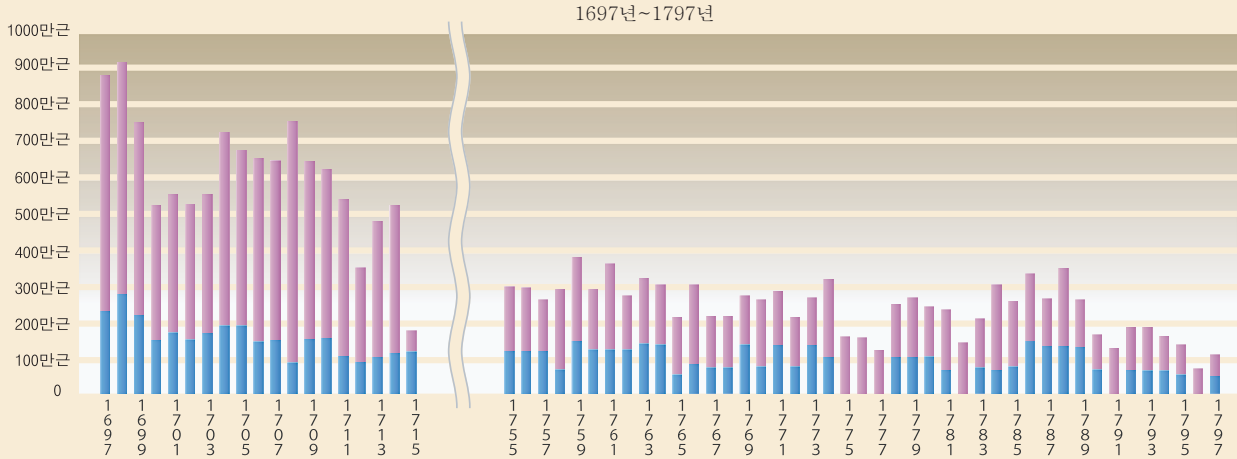
실패 · 나가사키 통상조표, 1828년 9월,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1장 지본묵쇄 37.3cm×50.5cm)

활기를 띤 중국과의 무역 (상거래와 무역품)

【구리와 설탕 취급량의 변화】

구리의 수출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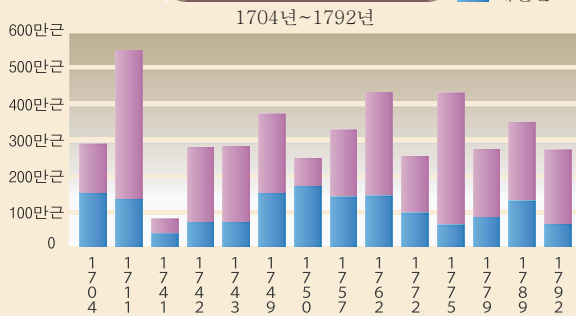
■ 당선(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역선)
■ 네덜란드 선박



자료제공: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설탕의 수출량 변화

■ 당선(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역선)
■ 네덜란드 선박



■ 수입품

에도시대 초기에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품목은 뽕과 통킹(하노이의 옛 호칭)산 생사(生糸)였지만, 18세기 초에는 일본 내에서의 생사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입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생사를 대신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산 설탕이었습니다. 당시 바타비아에서는 설탕 생산량이 증대되었고, 중국은 이것을 사들여 대량으로 일본에 들여왔습니다. 그 밖에도 소방목을 비롯한 약재와 비단이나 옥양목 등의 직물, 서적, 유리제품 등을 수입했습니다.

■ 수출품

일본은 주로 은을 수출했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기에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고품질의 은을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은과 함께 금화도 수출했지만, 당시의 금화인 겐로쿠 엽전은 품질이 좋지 않았기에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금과 은을 대신해서 주요 수출품이 된 것은 구리와 다와라모노(俵物)였습니다. 다와라모노란 조린 해삼과 말린 전복, 상어 지느러미 등의 해산물을 짚 가마니에 넣은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방충제 등에 쓰이는 장뇌(樟腦)와 해산물, 도자기, 칠기 제품, 구리제품 등이 활발히 수출되었습니다.

■ 동괴(棹銅)와 동괴상자

초기에는 무역에서 은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에 은의 수출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은을 대신하여 구리를 수출하게 되었고, 1690년에 이후에는 구리가 주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결제에 사용된 구리는 동괴(棹銅) 형태로 오사카에서 만들어져 나가사키로 옮겨졌습니다. 동괴는 길이 약 21cm에 폭이 약 2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로 100근(약 60kg) 씩 나무 상자 담아 수출되었습니다.



100근의 동괴(棹銅)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목제품)
동괴의 길이 약 21cm, 폭 약 2cm 나가사키시 교육위원회 소장



동괴(棹銅)
길이 약 75cm, 넓이 약 3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중국과 일본의 교류 (생필품 무역)



당인주거지 광장에서의 거래도 (“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작가 미상, 에도시대 후기(19세기), (1권 지본목화 35.4cm×446.0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 ① 니노몬(二ノ門)
- ② 문지기의 검사
- ③ 경비초소(番所)
- ④ 구매한 물건을 옮기는 모습 (생선, 채소)
- ⑤ 구매한 물건을 옮기는 모습 (닭)
- ⑥ 구매한 물건을 옮기는 모습 (장작)
- ⑦ 일본인 상점 (장작)
- ⑧ 일본인 상점 (도자기)
- ⑨ 일본인 상점 (칠기)
- ⑩ 일본인 상점 (우산)
- ⑪ 일본인 상점 (종이)
- ⑫ 일본인 상점 (철물)
- ⑬ 일본인 상점 (전복)
- ⑭ 일본인 상점 (닭고기)
- ⑮ 일본인 상점 (채소)
- ⑯ 일본인 상점 (생선)
- ⑰ 일본인 상점 (두부)
- ⑱ 일본인 상점 (닭)
- ⑲ 구매한 물건을 옮기는 모습 (닭)
- ⑳ 오오몬(大門)



문감(감찰), 1839년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당인주거지 광장에서의 거래도 (위 그림)

당인주거지의 오오몬(大門)부터 당인주거지 가장 안쪽에 있는 정원까지의 풍경이 그려진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에는 광장에서 중국인과 일본 상인들이 거래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생선과 채소, 소금과 간장 등 상품별로 2명에서 6명의 생필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매일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광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그때마다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끝내고 귀국할 때 무역 매출에서 한번에 차감되었습니다.

■문감 (아래 그림)

1839년에 당인주거지의 관리가 발행한 당인주거지에 출입을 허용하는 문감(통행허가증). 당인주거지의 오오몬(大門)과 니노몬(二ノ門) 사이에는 광장이 있었으며, 1707년 이후에는 이 광장에 생선과 채소 등의 생필품과 칠기와 이마리야키 도자기 등을 파는 시장이 세워졌습니다. 이 문감은 이곳에서 장사를 허가받은 상인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이 밖에도 공사 등으로 당인주거지를 출입하는 장인들에게도 발행되었지만, 이들 역시 니노몬에서 당인주거지 내부로의 통행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